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14.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심

2013. 04. 0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어 오늘도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8~1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끝났습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에 밀리니까, 어느 것이 바른가를 분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현재 교회에도 있지요?

답: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지탄을 받는 것도 그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재림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재림교회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구별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성경을 어느 모로 연구해도 성경의 안식일이 일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대도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재림교회를 율법주의라고 비난하지요. 그들이 지키는 소위 주일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교회의 유전으로 지키거든요. 제칠일 안식일을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그들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쉽게 이단이다, 율법주의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은 다수가 그렇게 하면 쉽게 믿어버리지요. 그래서 오류가 진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다수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힘이 더 세어지지요. 작년에 LA 지역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의논한 일이 있었지요. 그 이단 중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인 우리교회도 포함되었던군요. 그러면서 그들은 5가지 이유를 말했더라고요. 그것이 1.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가 있음. 2. 은혜로만의 칭의를 부인함. 3. 그리스도를 저하시킴. 4.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집단임. 5. 종말론에 중점을 두는 단체임. 이것이 이단이라는 이유로 제시된 것인데요, 4번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3번 그리스도를 저하시킨다는 것도 무

손 말인지 모를 소립니다. 재림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월터 마틴이 주장한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에 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마틴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의 저서에서 밝혔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림교회 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단의 주장도 교리도 아닌데요. 그리고 1번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가 있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엘렌 화잇의 저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한 오해지요. 엘렌 화잇 자신이 성경 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잘 모르니까 이런 틀리는 사실을 마치 우리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이것은 선전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5번 종말론에 중점으로 둔다는 말 외에 다른 네 개는 모두 그들이 스스로 오해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일 뿐입니다. 5번도 종말론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까? 아주 성경적이지요. 그러나 중점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재림에 대하여 상기시키는 것인데 뵈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2. 목사님, 계시록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교회 변증을 하십니까?

답: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도 교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글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지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날은 신약시대가 끝난 지 여러 세기 후에 교황이 고친 것이 아니다. 신약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오래지 않아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했다. 이레 중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린데 대한 언급은 교부들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곧 기원 110년 안디옥의 감독 익나시오의 문헌과 기원 100~165년 순교자 저스틴의 문헌과 120~150년의 바나바와 178년의 이레네오와 154년의 바다이산과 200년의 터틀리안과 250년의 오리겐과 200~258년의 기브리안과 300년의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와 315년의 유세비오 등등의 문헌이다.]

이렇게 썼네요. 그런데 여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성경구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약에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고”라고만 했는데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결코 없거든요. 우리가 계1:10 주의 날에 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미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경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계1:10이 있고, 행20:7이 있고, 고전16:2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다 일요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지요. 그 날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장소에 찾아오신 것이니까요.(요20:19) 그리고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온 날을 일요일로 보고 같은 요일에 제자들이 항상 모였으니까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추측이지,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조용히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들이 닫혔다는 말을 사용했거든요(요20:26) 그 전에 모인 날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요20:19)라고 했거든요. 26절의 표현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20:7은 안식후 첫날 떡을 떼려고 모였다가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밤중까지 지루하게 강론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일요일 낮이 아니고 요즈음으로 말하면 토요일 밤입니다. 뉴잉글쉬 바이블에는 토요일 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도 일요일을 주일로 했다는 구절이 아닙니다. 고전16:2은 연보에 대하여 말하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얻은 이익을 따라 저축해두어 연보하라고 하는 권고인데 이것을 일요일 정기 예배에 연보한 것이라고 억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차라리 안식일에 돈 계산하지 말고 안식일이 지난 시간에, 원문대로는 안식 후 첫날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밤입니다. 행20:7과 같은 시간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혹은 새벽이나 미명이라고 해야 일요일 아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이익 중에서 연보를 위하여 계산하는 것은 안식후 첫날에 하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일하고 나면 곧 안식일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지면 안식 후 첫날에 즉 토요일 저녁에 이문을 계산하고 연보를 위하여 저축해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일요일 예배 시간에 대한 것이라면 저축해두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해 둔 것은 바울이 갈 때에 비로소 연보를 하느라고 수입을 계산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정기 예배 헌금이 아니고 구제를 위한 특별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에 예배일로 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지요.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성경의 근거를 찾으려서 확실한 구절이 없으니까 그런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답: 예,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교리와 신조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이분들은 교부들의 문헌으로 제시합니다. 교부들은 문헌은 결국 성경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권위로 교리와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교부들인 익나시오, 순교자 저스틴, 12~150년경의 교부 바나나, 이레네오, 바다이신, 터툴리안 오리겐, 기브리안,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베드로 유세비오 등등을 권위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오직 성경으로 안식일이 바른 예배일이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니 정말 자기가 친 그물에 자신이 걸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6가지 사실을 들어 비방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자칭 유대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비방하고 핍박한 역사적 사실을 살피는 중에,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 때처럼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제가 옆으로 빠지는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성경구절로 돌아가지요.

답: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린 말씀도 성경구절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 성경구절 설명에 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절을 살필 시간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핍박도 힘든 것이었는데, 앞으로, 즉 장차 또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으로 목숨을 잃어도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지킬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이 환난을 지휘하는 자는 마귀라고 밝힙니다. 자칭 유대인 회가 주동이 되었든지, 로마 관리가 주동이 되었든지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은 현실에서 그것이 누구이든지 실제 주장자는 마귀라는 것을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인들을 옥에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0일간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라스데테”는 “유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다”는 뜻으로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형벌을 뜻합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순교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이 기간이 10일간이 될 것인데, 혹독한 환난은 10일간이라도 길지요. 10일은 그래도 피하고 도망하여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길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10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긴 기간을 상징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갈려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주 극단적인 환난 기간인데, 환난이 완전한 환난이라고 할 정도로 극에 달한다는 것을 표상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4. 완전한 환난이라는 해석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답: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이고 환난이 최악의 극에 달하도록 긴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시록은 예언이고 표상과 상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가 당시 서머나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서머나 교회 시대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기간을 가르쳐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상적 예언에서 표상적 기간은 1일 1년 월척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지요. 그러므로 10일간은 10년입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인 100~313년까지 기간에 극심한 핍박이 있을 10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머나 교회의 사자인 폴리갑이 이 편지를 수신했겠지요. 또 당시 서머나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았겠지요. 동시에 예언으로 표상된 서머나 교회 기간인 100년에서 313년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으로 이 기간에 교회에 가해진 핍박을 역사에서 찾아보면 참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로마의 그리스도교 10대 핍박이 있습니다. 그 첫째와 둘째 핍박 외에는 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AD. 64년의 로마 대화제(7주간 동안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불타)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핍박했지요. 이미 말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오락에 이용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가죽을 입혀 개에게 던짐, 기름을 뒤집어 씌워 밤새 불을 켜서 소위 인촉(人燭)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네로 황제가 자신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박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지요.

두 번째, AD. 90-96, 도미티안(Domitian) 황제 때 핍박입니다.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지방에 집중되었는데,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경

배하라고 한 것이 주 이유입니다. 그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이때 요한은 밧모로 귀양 보냈지요. 이 시기에 황제의 사촌도 순교했는데, 내가 참고한 책에 이름이 없네요, 그리고 안드레, 마가, 오네시모, 로마의 클레멘트 등이 순교했습니다. 그 후 도미시안은 유다의 두 손자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초청하여 관찰하다가 그들의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예루살렘으로 두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도미시안은 정적들에게 암살을 당했지요.

세 번째, 98-111, 트라얀(Trajan) 황제입니다. 당시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가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확인하여 진실 된 그리스도인들을 사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가 서머나 교회 시대가 됩니다. 트라얀은 최초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도록 핍박을 합법화한 황제입니다. 그의 로마 정부는 자연재해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하면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트라얀 황제 때의 유명한 순교자는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시우스와 시므온, 소지무스, 루푸스 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인데 우리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고 책에 기록된 이름만 읽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 117-138, 하드ريان(Hadrian)황제 때입니다.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핍박이 있었는데 근거는 트라얀 황제의 합법적으로 핍박하게 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도 처벌했습니다. 그가 비록 교인이 아니었어도 처벌했습니다. 이 때 이름을 남긴 순교자는 텔레스포루스라는 사람이네요.

다섯 번째, 161-180,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황제 때입니다. 이 황제는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미신으로 여겼지요. 이 사람은 로마의 다섯 현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현제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의 명상록은 유명하고 세계의 고전입니다. 그래도 성경의 신앙을 자기 사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때도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이름을 남긴 순교자들이 순교자 저스틴, 포티누스, 블랜디나 등입니다.

여섯 번째, 202-211,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황제 때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핍박 기간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개종을 금지하고 교회는 핍박했습니다. 이때 순교자로는 레오니다스, 이레니우스, 페르페투아 등이 있군요.

일곱 번째, 235-251, 트레치안 막시미누스(Maximinus) 황제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하고, 기독교인들이 암살당했던 전임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순교자로는 우르술라, 히폴리투스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249-251, 데키우스(Decius)황제치하 처음으로 제국전역으로 박해가 번졌습니다. 황제 신 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를 금지하고 열정적으로 이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순교자로는 파비아누스, 예루살렘의 알렉산더가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홉 번째, 257-260, 발레리아누스(Valerianus)황제치하 기독교인의 재산 압수 하고, 기독교인의 집회 금지 했습니다. 오리겐, 키프ريان, 식스투스2세 등이 순교했군요.

열 번째, 303-311, 디오클레시안 황제 이때도 로마제국 전체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모든 예배 처소와 기독교 관련 서적을 불태울 것과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하는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동로마의 황제 갈레리우스(305-311)가 계속 약 6년간 박해를 하였으나, 총이 먹어 고통이 심하자 기도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박해를 완화하여 311년에 기독교 핍박을 중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認에까지 연결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10년간이 바로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303년에 내린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습을 금지하는 칙령을 반포한 때로부터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313년까지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10년인데, 이때 디오클레시안의 칙령에는 핍박하는 요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1. 모든 기독교 신앙 습관을 금지하라. 2. 모든 교회는 폐쇄하라. 3. 집사 이상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투옥하라. 4.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방면하라. 5.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이런 내용들이 칙령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아주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인 갈레리우스에게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조언을 들은 후에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머나 교회나 서머나 교회로 표상된 시대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햇빛을 보고 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했지요. 이런 충성이 오늘날은 드문 것 같습니다. 순교시대는 아니지만 평안한 중에 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한 때에 더 굳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5.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 감명 깊었습니다. 또 10일간이라는 예언의 정확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어떤 경로로 환난이 그치게 되었습니까?

답: 아까 이야기한 대로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환난이 그치게 되었지요.

6.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신앙의 자유를 준 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답: 예, 당연히 계기가 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아주 시골 천민 출신이었는데, 자수성가하여 황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행정력으로 통치를 잘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년에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로마를 동서로 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기로 하고 자기는 동쪽 로마에 가서 정황제가 되고 자기 사위 갈레리우스 부황제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콘스탄티노폴이 된 비잔티온에서 집무했습니다. 그리고 서쪽 로마는 막시미아누스에게 맡기고 콘스탄티우스1세 클로스를 부황제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동서 로마의 정황제가 죽자, 그 자리를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틴이 서로마의 정 황제 자리를 두고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막센티우스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투지역이 밀비우스 다리였는데, 전투는 312년 10월 28일었고 콘스탄틴이 승리하고 막센티우스는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이때 콘스탄틴이 승리한 배경을 기록하였는데,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틴의 꿈에 예수께서 찬란한 태양에 십자가 형상을 보이면서 나타나서 이것을 굳기로 하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내일의 전투에서 이긴다고 말하였고 기독교도를 나타내는 문자 가운데 X와 P를 합친 문자 라바룸을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게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콘스탄틴이 기독교 신앙을 자유화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버가모 교회 시대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는지 모르겠군요.

7. 예, 목사님, 오늘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쳐야 되겠네요. 기도하시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 시대에 극심한 핍박 중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평안한 시대에 더욱 굳세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순교자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